

# 충남교육청 상상이룸교육의 힘

4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 성황  
창의체험활동과 나눔시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힘 길러

충남교육청은 지난 19일 홍성 홍주 문화체육센터에서 홍성·예산·청양지역 학생과 교육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같이 상상, 가치 미래!’, ‘미래를 바꾸는 착한 상상’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길렀다.

한울초의 인공지능(AI)과 같이 만든 ‘가치 있는 미래’ 노래 공연과 충남 드론항공고의 ‘스피드 드론 마당’ 등 식전 무대에 이어 가상현실(VR)드로그램 영상작가의 ‘상상을 그리다 미래를 있다’ 가상현실 속 예술 쇼가 펼쳐져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전했다.



지난 19일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4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참여 학생들과 디지털 사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어울림 마당에서는 상상이룸 FLL(FirstLegoLeague) 도전과제 한 마당, ‘내가 만드는 e-스포츠 체험’이 진행돼 학생들은 디지털 기반의 협업 활동을 통해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 디지털 소통 역량을 익혔다.

체험 마당에서는 총 20개의 창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14개 상상이룸 공작소, 충남로봇체험센터, 상상이룸 교육 교사학습공동체, 상상이룸 학생 동아리, STEAM 클럽(동아리)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과 함께 포토 카드 만들기, 3차원 모델링, 레이저 커팅, 드론 비행 조종, 사족보행 로봇 미션 등 다양한 미래기술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쌓았다.

홍성교육지원청은 찾아가는 학부모 환경활동가와 함께하는 실천하는 탄소 중립 활동 체험, 멸종·멸종위기의 멸종 위기 동·식물 탐구 사례 나눔, 운동원리를 활용한 오토마타, 홍스타의 망원경 넘어 우주 탐험 등을 운영해 환경 감수성과 과학적 탐구력을 끌어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협력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며 “상상이룸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친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 □ 동정

### 대덕중 국제교류 행사 환영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1일 오전 8시 45분 대덕중학교에서 열리는 ‘2025학년도 대덕중-태라이중(日) 국제교류 행사 환영식’에 참석한다.



농협중앙회 대전본부는 지난 18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실시한 가운데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제공

###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대전과학고 3개팀 최우수·우수상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에서 대전과학고 3개 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2019년부터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 관심 도모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교육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 및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대회다.

올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2개 팀이 증가한 총 20개 팀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이 중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 수상팀은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했고 우수상 수상 2팀은 ‘학력위험군 조기경고 시스템’과 ‘폐교 활용 방안 추천 모델’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수상작들은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누리집(edss.moe.go.kr)에 탑재해 대국민 공개 및 교육 분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이미혜 혁신정책과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교육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 농협 대전본부 ‘천원의 아침밥’

농협중앙회 대전본부는 지난 18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쌀 소비촉진 활성화와 건강한 식습관 문화 장려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자부담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김영훈 본부장, NH농협은행 대전본부 황진선 본부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권희근 대전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농협 대전본부는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본부장은 “대전 범농협 임직원들이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하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서 쌀 소비촉진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김형중 기자

### 이정현 공주대 교수,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이정현 교수가 ‘제24회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은 로레알 코리아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우수 여성과학자를 발굴·시상해 온 권위 있는 상이다.

이 교수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신진 여성과학자에게 수여되는 펠로십 부문에서 환경 분야 대표로 선정돼 연구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 교수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평가를 위해 화학적, 생물독성학적, 생태학적 접근을 통합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국제 학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현 교수가 제24회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부문을 수상하고 있다. 국립공주대 제공

이 교수는 “앞으로도 생물독성기반 평가기법, 생태 독성 지도화 등 다양한 융합기법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과 갯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미래 과학자와 환경교육자를 양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 K-water, 수해지역 지원 팔 걷었다

전국 유역본부 긴급 지원체계 가동 구호자원 총동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영산강·섬진강 본부를 비롯해 금강, 낙동강, 한강 등 전국 유역본부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과 담양 등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긴급 식수 지원을 위해 19일 오전까지 식수용 병물 1만 2700병의 신속 공급을 완료했다.

앞서 공사는 홍수기 대응을 준비하며 지역사회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병물 공급, 식수차 투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왔다. 현재 병물 생산설비는 24시간 상시 가동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을 대비해 비상 식수 공급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또 세면용품 등이 담긴 긴급구호 세트와 라면 등 식료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서산, 당진

등에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임시 거주시설과 고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세탁차량 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천 범람과 하수 역류 등으로 수인성 질병 및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차량 ‘K-water 의료사랑방’을 운영하고 전문 방역팀을 투입해 침수지역 소독 등 위생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홍수기 대비에 있어 물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관할 시설이 아니라도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비상 대응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따라 긴급 대응을 지속해 나가며 안전한 식수 확보를 비롯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 충남문화관광재단 신임대표에 이기진 씨 내정

(재)충남문화관광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이기진(사진) 충남문화관광재단 전 관광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이사 공개모집에는 9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종 낙점했다.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이 내정자는 홍성고와 충남대 경제학과, 우송대 외식경영학 석사와 배재대 관광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충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과 백제문화제(공주) 집행위원, 중부대·백석대·배재대 겸임 및 강의 전담 교수 등을 지냈다. 2023년부터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서해선셋다잉’,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 등 ‘충남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위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관광과 축제, 음식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심층 보도 등으로 문화·관광·음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으며 정치·경제·사회·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공식 임명되며 임기 동안 조직 안정과 문화관광 사업 추진 등 재단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언론, 행정, 정책 분야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서 복합적 리더십을 갖췄다”며 “‘충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문화예술, 축제, 관광, 조직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 지역문제 해결 지역혁신 선도 인재양성 맞손

사회혁신센터-대전대 대학교육혁신원, 대학교육과 지역 현장 연계

대전시사회혁신센터와 대전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합친다. 혁신센터는 최근 혁신센터에서 대학교육혁신원과 ‘지역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역 혁신을 선도할 미래 인재의 역량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혁신센터는 학생이 대전 현안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가 보유한 자원 연계 및 폭넓은 협력, 프로젝트 성과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인재는 실무 경험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혁신센터장은 “대학의 풍부한



이상호 대전시사회혁신센터장(오른쪽)과 심재은 대전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지역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전시사회혁신센터 제공

한 지식 자산과 학생의 새로운 시각이 지역사회가 가진 현안과 만날 때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미래 인재인 학생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0303@ggilbo.com